죽어가던 아들 모습 생생…매일 눈물만 납니다

5·18때 자식 잃은 오월 어머니들 '슬픈 가정의 달'

"정부 바뀌어도 바뀌는 것 없어"
"살려 달라던 아들 못살려 평생 한"
22년만에 유골로 아들 만나기도

"모든게 내 죄고 내 잘못이지. 내가 잘 살았으면 내 자식이 죽진 않았을 건데…."

1980년 5·18 당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에게는 가정의 달인 5월이 가장 잔혹한 달이다. 어머니들은 본인들의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 아들을 떠나보냈다고 자신을 원망하기 바빴다.

1980년 작성된 5·18희생자 검시보고서에 따르면 5·18기간 중 사망자는 총 165명. 연령별로는 14세 이하는 8명, 20세 미만은 37명, 20대 71명, 30대 28명, 40대 10명, 50대 6명, 60대 4명, 연령미상 1명 등이다.

이 중 학생희생자는 대학생 10명, 고등학생 8명, 초등학생 1명(당시 국민학생), 중학생 6명, 기타(통신고, 학원생 3명)등 총 28명이다.

◇문재학군의 어머니 김길자씨=1980년 5월 27일 옛 전남도청에서 최후까지 항쟁하다 숨진 문재학(당시 17세·광주상고 1학년)군의 어머니 김길자(81)씨는 "재학이가 생전에 김치찌개를 좋아해서 김치찌개만 보면 아들생각이 난다"고 했다.

2남1녀중 막내인 문군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평소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문군은 당시 집안 형편 때문에 빨리 돈을 벌어 집안을 살리겠다며 상고에 진학했다고 한다.

이런 문군은 1980년 5월 23일 제발 나가지 말라고 말리던 김씨 부부의 당부를 뿌리치고 옛 전남도청으로 향했다. 김씨는 매일 도청으로 찾아가 아들에게 집에 돌아가자고 했지만 문군은 "국민학교 동창인 창근이가 총에 맞아 죽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저는 여기서 심부름이라도 하면서 지내야겠어요"라며 김씨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27일 새벽, 요란한 총소리와 함께 김씨는 더 이상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아들의 사진을 꺼내 보이며 눈물을 훔치던 김씨는 "폭도라는 오명을 쓴 아들을 위해 전국을 누볐지만, 정부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도 바뀌는 것은 없었다"면서 "아들을 볼 면목이 없어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호중씨의 어머니 이근례씨=1980년 도청 앞 친구를 만나러 간 권호중(당시 19세·재수생)씨를 22년만인 2002년 무명열사묘에서 찾은 이근례(80)씨는 40년이 지난 오늘도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씨는 권씨를 타고난 효자로 기억했다. 어디선가 눈깔 사탕을 얻어온 권씨는 엄마 손에 쥐어주면 동생들에게 줘버릴까봐 입속에 사탕을 직접 집어 넣어주기도 했다며 아들을 회상했다.

이씨는 권씨 외에 아들 1명과 딸 3명이 더 있지만, 유독 권씨를 떠올릴 때면 죄책감을 벗을 수 없다고 한참을 울기만 했다.

이씨는 "22년 전 망월동 묘역에서 아들의 주검이 있었지만, 부패가 너무 심해 내 아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아들을 찾아 헤맸다"면서 "엄마가 어찌 아들의 주검도 알아보지 못했을까 평생의 한이 됐다"고 말했다.

◇민청진씨의 어머니 김정복씨=1980년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첫 집단발포가 있던 날 머리에 총알을 맞은 민청진(당시 19세·재수생)씨의 어머니 김정복(85)씨는 아들을 살리지 못한 죄책감에 40년을 눈물로 보내고 있다.

양동시장에서 배추장사를 하던 김씨는 아들이 골목길에서 총을 맞아 병원에 실려 갔다는 소식을 듣고 만사를 제쳐두고 병원으로 뛰어갔다고 한다.

병원에 도착한 김씨는 아직 살아있는 아들을 발견했다. 김씨를 보고 눈을 뜬 아들이 "엄마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는 말에 "어떻게든 살려주마"라고 대답했지만 그 대화가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고 전했다.

김씨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 험한 상황을 뚫고 대학 병원으로 이동했다. 아들의 머리 속에 손을 집어 넣고 총탄을 빼내는 의사가 머리를 가로 저으며 힘들다 라는 말을 하자 김씨는 억장이 무너졌다고 한다.

김씨는 "아들한테 살려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그날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도 먹먹하고 가슴이 벌렁거린다"고 한참을 울먹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980년 5월 27일 옛 전남도청에서 숨진 문재학군의 어머니 김길자씨가 취재진 앞에서 문군의 사진을 꺼내 보이며 눈물짓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학교도 못갔는데 수업료 35만원 내라니요"

무상교육 제외 고1 학부모
청와대 국민청원 등 '불만'

"학교도 못갔는데 수업료 35만원 내라니요…."

'코로나19' 영향으로 학교 문이 두 달 넘게 닫힌 가운데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생만 200만원에 가까운 교육비를 내게 되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고교 2~3학년생 전원이 무상교육 지원을 받고 있지만, 고교 1학년생만은 교육부의 순차적인 무상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제외됐다.

이 때문에 고교 1학년 학부모 사이에선 "우리만 재수 없이 교육비를 내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

무상교육에 포함된 것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로 1명당 연간 160만원이 넘는다. 분기별로 4차례 나눠 내는 수업료는 학교가 위치한 급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한 번에 35만원씩 총 140만원 선이다. 역시 1년에 4차례 내는 학교운영지원비는 한 번에 평균 7만2000원으로 모두 합치면 28만원가량이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고교 1학년 학생 11만 4924명 중 수업료 등 면제자(지원자 포함) 3579명(3.1%)을 제외한 11만 1345명(96.9%)이 교육비를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등교가 지연되면서 다른 학년과 똑같이 온라인 수업을 받고도 유일하게 160만원이 넘는 교육비를 내야 하는 고1 학부모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등학교 1학년 등록금 감면을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이날 오후 7시 기준 8000여명이 동의했다.

한편 전남지역의 고교 1년생도 무상교육에서 제외되지만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입학금과 교과서비는 물론 수업료까지 지원되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거의 없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대 개교 40주년… '미래 선도형 교육' 앞장

창의 융복합 인재 배출 총력

13일로 호심학원 창설 50주년과 학교 개교 40주년을 맞은 광주대학교가 새로운 미래를 대비한 '미래 선도형 교육'에 올인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광주대는 올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2년 연속 콘텐츠원캠퍼스 구축 운영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에 연달아 선정되며, 창의 융복합 인재를 배출하는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대는 4차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 융복합 인재 육성과 호남·제주권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거점 교육기관을 목표로, 도시재생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신설하고 학과를 개편하는 등 도시재생 분야에 특화된 '도시재생 닥터(UR-Doctor)'를 양성한다.

호남지역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선정된 광주대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발맞춰 전문가를 육성, 취업까지 연계하는 등 도시재생 거점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실무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건축학부, 문화예술대학, LINC+ 사업단 등과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 선도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김혁종 광주대 총장은 "도시재생과 콘텐츠 산업은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가는 핵심 동력"이라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지원해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 융복합 인재를 배출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장미, 온라인으로 즐기세요

코로나 여파 장미축제 취소
랜선 장미축제, 영상 제공

지역 최고의 장미 축제인 '조선대 장미축제'가 취소됐다.

조선대학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는 장미원을 개방하지 않고, 장미축제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선대 장미원은 매년 5월이면 8299㎡의 면적에 무려 227종의 장미가 만개, 지난 20년 동안 해마다 수십만명의 지역민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잡았다. 조선대는 해마다 5월 개막식 공연을 포함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현장 행사를 진행했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기존 방식의 장미축제를 취소했다.

대신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랜선 장미축제'를 기획, 장미원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 조선대학교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조선대학교 민영돈 총장은 "조선대 장미축제는 내년에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지역민을 찾아갈 것"이라면서 "올해는 장미원 방문을 삼가해주시고, '랜선 장미축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

상록도서관 '인문독서아카데미' 3년 연속 선정

7월까지 15회 인문학 강연

광주시 서구 상록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2020 인문독서아카데미' 공모사업 수행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서구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상록도서관은 '사람을 읽고, 역사에 공감하다'란 주제로 오는 7월까지 총15회 인문학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연은 ▲1주제 광주시 상임인권옴부즈맨 전용호 강사의 '5·18 민주화운동을 빛낸 인물들' ▲2주제 솔내음문학연구소 소장 이진 강사의 '문학작품으로 만나는 역사인물의 삶과 목소리' ▲3주제 PK 연구소대표 김명화 강사의 '그림책 속에서 만나는 화가의 삶과 목소리' 등 총 3개 주제로 구성된다.

인문독서아카데미는 공공도서관, 문화원, 문화재단, 비영리민간단체 등 85개 지역 문화시설에 예산을 지원, 전 국민이 인문학 강의를 통해 인문정신을 고양하고 지역 독서문화 증진 및 독서인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국 85곳의 공공도서관과 문화원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1곳당 국비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수강 신청은 서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seogu.gwangju.kr/library)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350-45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전남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제정

반려동물을 기르는 전남지역 저소득층에 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제정된다.

1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복실 의원(민생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이날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저소득층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 수술, 백신 접종 등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